

“간소히 살라. 단순해질수록 가난하지 않다”

불교로 읽는 古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변택주 '연구소통' 소장

자연에 기리고 문명사회를 비판한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가 이태에 걸친 월든 호숫가 삶을 오롯이 추린 보고서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 교사와 목수, 측량 기사를 하다 1845년 나이 28살에 월든 호숫가로 들어간 소로, 여러 달에 걸쳐 제 손으로 지은 오두막을 조그만 나무 침대 하나, 식탁, 나무로 만든 책상 하나와 걸상 세 개, 숯, 나이프 두 개 포크 두 개, 접시 세 개, 고독과 가난으로 넉넉하게 채웠다.

참답게 사는 밀짚미가 뭘지 알고 싶어 숲으로 들어갔다는 소로, 그는 “되도록 오롯한 살만을 마주해, 깊이 살아 알뜰을 모두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넓게 베어내고 바삭 잘라내어 구석까지 물고 가서 그루터기만 남기고 오롯이 살자는 데 뜻을 뒀다. 만일 삶이 하찮다면 하찮음만을 오롯이 모아 세상에 드러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삶이 거룩하다면 그대로 몸으로 겪고 느껴 내 다음 여행에 오롯이 새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소로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월든 호숫가에서 누린 이태 남짓한 나날은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 없는 삶이었다. 언어 입은 옷이 찢어지면 기워 입고,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살았다. 소로는 <일기(Journal)>에서 “스토아 철학자 제논이 세계와 맺고 있는 사이와 내가 세계와 맺고 있는 사이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동양사상과 인도철학에도 조예가 깊어 <공자>를 번역하기도 했던 소로 사상은 현실세계 무한성을 예기하는 ‘스토아주의’로 모인다. 슬기로운 삶을 이끄는 연장으로 여기는 스토아주의는 논리와 물리를 디딤돌 삼아 윤리로 나아간다. 키케로는 스토아 윤리를 간추려 ‘덕스러운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단 한 가지 조건’이라면서 “행편이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행복하다. 굶이 굶이 삶이 굴곡져도 오래도록 넉넉하려면 오로지 덕스럽게 사는 것뿐”이라 했다.

스토아주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절집 얘기를 떠올릴 만큼 이성을 흐드는 느낌은 좋은 것이든 못한 것이든 모두 뿌리치려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고 외친 철학이다. 스토아주의 윤리는 완벽한 도덕을 갖춘 자유에 이르러는 것이고, 그 꼭지점에 주어지는 평정, 마음 놓음이 바로 아파테이아(Apathia)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꼭지 니르바나(Nirvana)와 닮았다.

소로는 “모든 목숨붙이는 살아있어야 한다. 사람이나 사슴이나 소나무나 마치 한 가지인데, 이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죽이려하기보다는 보듬으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소로를 깊이 연구한 로버트 리처드슨은 “소로는 일상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을 늘 던졌다. 자연을 다스리는 법칙이 사람도 다스린다는 철학으로 살아가며 깊은 뜻을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로를 볼 때, 비로소 소로를 잘 헤아릴 수 있다”고 했다.

소로는 숲에 들어간 까닭을 “오로지 사는 밀짚미를 마주해 죽음을 맞았을 때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며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목숨붙이를 보듬어야 한다는 소로, 리처드슨이 드러낸 소로, 오직 사는 밀짚미와 마주 하겠다는 소로한테서 고통 뿌리를 낚 날이 짙어 들어가 밀짚미를 드러내어 마음 놓는 열반에 이르러, 가뭇하게 모든 목숨붙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누리게 하려던 고타마 붓다. 자연과 어울려져 주인공으로 살라, 스스로 하기에 따라 삶을 옹골게도 허술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고타마 붓다를 느낀다.

소로는 끼니를 이으려고 자연스러움을 잃어야 한다면, 차라리 굶어죽겠다고 했다. 고갱이는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는가, 제가 먹는 빵에 얼마나 참된 팔랑음이 깃들었는가, 삶에서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무엇을 흘렸는가에 따른 물음이다. “왜 우리는 헤어져 살피지 않고 아등바등, 서두를까? 어떤 사람이 제 포래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목숨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 이념이 즐기는 음악에 맞춰 걸어가게 내버려두라. 그 목소리가 어떻게든 또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이념이 꼭 사과 나무나 딱딱나무와 같은 속도로 자라고 무르익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남과 발을 맞추려고 제 봄을 여름으로 바꾸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면서 “저다움”을 부르짖는다.

간소하게 제 야가림하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소로가 생각하는 행복이었다. 거름도 주지 않은 채, 삼만 써서 농사를 짓기에 거둬들었다고 해봐야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소로는 가벼운 연장과 몸으로 만 제 야가림을 하겠다고 거친 땅을 갈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은관 사진. 소로는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이곳의 생활을 정리한 수상집이 <월든>으로 생태적 삶의 성찰이 잘 담겨 있다.

2년 2개월 호숫가 오두막 생활 정리한 수상집 '죽음 앞에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생활'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라' 붓다 가르침과 맞닿아

기른 감자와 콩, 순무 따위만을 끼니로 받아들였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먹은 빵은 내가 굶고, 내가 입은 옷은 내 손으로 빨기를 바란다.” 소로는 “간소하고 간소하라! 바라건대, 되도록 하루 한 끼만 먹어라. 백 가지 요리를 다섯 가지로 줄여라. 단순하게 살수록 그 때 비로소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된다”며 우리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사람들은 <월든>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낭만이나 넉넉함을 좇으려 하지만, 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밀짚미를 돌아보라며 먹살 잡는다. 그러나 소로가 보여준 삶은 더 많이 갖기를 바라고, 새로운 물질문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소로를 이단으로 몰았다. 부와 명예를 좇아 신대륙까지 흘러들어온 유럽사람 욕망은 끝 간 데를 몰랐다. 전쟁을 부르고, 노예제를 놓고, 자연을 짓밟고, 원주민을 몰아냈다.

대학을 갓 나온 소로는 중학교에서 아이

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매를 들기보다는 말로 타이웠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소로에게 학교방침에 따르라고 다그쳤다. 하는 수 없이 말쑥을 부린 학생 여섯 명을 벌하고 죄책감을 시달리던 소로는 학생을 때려야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학교를 떠난다. 소로에게 학생을 중심에 놓지 않는 교육현실은 자유로이 굶어치는 시냇물을 빚어낸 도랑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소로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승 에머슨은 조화로운 일과 몸을 가진 소로에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로는 활기차다. 소로가 숲을 걷고 노동하고 땅을 측량할 때마다 참나무 같은 힘을 느낀다. 소로는 나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다. 소로는 내가 막연하고 따분하게 알릴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뛰어난 영상으로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소로는 미국 정부가 인두세를 걷자 그 돈이 노예를 사는데 쓰일지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드는 데 쓰일지 알 수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른 세금은 오파오파 내면서

도 인두세만을 내지 않은 까닭은 의사당 앞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까지 가족처럼 버젓이 팔리는 흑인 노예제도와 영토를 늘리려고 멕시코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맞서려는데 뜻이 있었다. 소로가 숲 속에서 홀로 지낸 한 해를 맞은 여름날, 고쳐달라고 말린 신발을 찾으러 마을로 갔다가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고 잡혀간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에머슨 “자네는 왜 이곳에 있는가?”하고 묻자 소로는 “선생은 왜 거기 계십니까?”하고 되받으며 가까이 옥살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가 소로의 뜻을 묻지도 않고 별금을 내는 바람에 뜻있는 버팀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억누르는 나라권력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을 쓴다. 소로는 이 글에서 ‘누가 쓸 물건이 되기에는, 누굴 따르는 2인자가 되기에는, 포어는 왕국에 쓸 만한 하인이나 연장이 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고귀하게 태어났다’는 세익스피어 <존왕> 5막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적바람했다. 소로는 폴스토이, 마하트 마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법정스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만큼 의의가 못한데 맞서는 못사람을 복돋운다.

그런 소로가 어쩌서 적극 나서서 노예 문제를 비롯한 멕시코 침공을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 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까닭에서가 아니라 좋은 나쁜든 그 안에서 살려고 왔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소로 생애를 낱알이 적바람한 영국 작가 헨리 솔트는 “소로가 콩을 심고 콩밭을 매는 일은 자연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뜻에서 소로가 앞장서 미국을 보듬기보다 <월든>을 써서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훨씬 더 훌륭했다”고 돌아왔다. 부정부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으뜸정부’라고 했던 소로, 누가 앞장 서 이끌기보다 시민 스스로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스토아학파는 개인끼리 도덕과 행복 일치를 내세웠다. 언뜻 보면 플라톤 행복론과 닮았어 보이나, 플라톤이 내세운 도덕이 도시국가공동체를 앞세웠다면, 스토아학파가 내세운 도덕은 개개인이 서로 보듬는 자유 실현에서 오는 행복이다. 자연은 사람을 넘어서는 흔들림 없는 밀짚미로, 행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아파테이아)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바람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부유함을 떠나 우주와 결을 이루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여긴 소로는 “제 삶을 사랑하라. 환한 빛은 부자들만 쬐면 아니라 가난한 집 창문도 다사라이 비춘다. 또

한 초봄이면 가난한 집 앞에 쌓인 눈도 녹는다. 그때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거기서도 궁전에서처럼 즐겁고 넉넉하며, 너그럽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읊는다.

소로는 기쁨이야말로 사는 바탕이라고 했다. “만약 우리 낮과 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향기롭다면, 또 우리가 별처럼 빛나 스러지지 않는데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두루 축복할 것이며 우리도 그때 스스로 축복할 까닭을 갖는다.”

리처드슨은 소로 <일기>는 즐거움, 경험을 향한 욕구, 예민한 감각,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넘친다고 했다.

“나는 숲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으로 숲을 떠났다. 내 앞에 또 다른 삶이 놓여 있음을 느꼈다. 숲에서 사는데 시간을 더 내어놓을 수 없었다.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험악한 길들여진 길을 밟게 되고 스스로 다져진 길을 만들게 되는지 그저 놀랄 따름이다. 나는 손님으로 선실에 편히 묵으면서 항해하기보다 차라리 거친 바람을 맞으며 돛대가 있는 갑판에 있기를 바란다.”

1847년 월든 호숫가를 떠나며 소로가 남긴 말이다.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거친 별판으로 나서는 구도자다움을 엿볼 수 있다. 월든을 떠난 뒤에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나위 없이 소박하지만 힘차게 살았다.

소로는 “아직까지는 이 들레에서 가장 좋은 땅은 사유지가 아니다. ... 그러나 언젠가 유원지라는 것으로 나뉘어 아박하게 소수 사람들과 누리는 날이 오리라.” 또는 “이번 겨울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있다. 구름까지 베어내지 못하니 천만다행... 소나무 가치를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나무꾼일까”라고 짚는다.

“농사꾼이 제 집을 얻었을 때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은 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른다. 이념이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이 이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은뎀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 종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던지라. 소수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다소곳이 순응할 때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쪼트 먹던 힘까지 쏟아 막을 때 불뿔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갖는다”며 우리 먹살을 거머쥐는 소로는 오늘날에도 거스를 수 없는 못물이다.

살므로 피어오르지 않는 맑은 구두선일 따를, 고타마 붓다가 당시 깨달은 가운데 길을 여덟 갈래로 세우려 누리 먹살을 거머쥐어 붓다듯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또한 이태 두 달 이들을 뜻한 바대로 산 옹골찬 삶을 낱알이 적바람해내어 소로일 수 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교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짠 5분만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간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